경허-혜월-운봉-향곡 법맥 이어

진제 스님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인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군 상동면에서 태어났다. 1954년 21세때 남해 해관암에서 석우(石友)스님을 친견한 것이 출가인연이 되었다.

1959년 26세 때 향곡스님을 친견,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 화두를 받아 2년동안 묘관음사 길상선원에서 두문불출 참구했다. 1961년 가을, 드디어 '향엄상수화' 화두를 타파하고 향곡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두 설두스님도 다른 공안에는 다 확연명백하였으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月面佛)' 공안에 막혀 다시 20년을 참구하였듯이, 진제스님도 이 공안에는 막혔다. 다시 이 화두를 5년동안 참구한 끝에 1967년 33세 되던 해에 확철대오해 향곡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이어지던 법맥이 진제스님에게 가 닿게 되었다. 스님은 1971년 37세에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을 역임하면서 해운정사를 창건했으며, 1981년 향상선원을 열었다. 94년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을 맡아 현재까지 납자를 제접하고 있으며, 96년 조계종 기초선원 조실, 2000년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을 역임했다.

허운대사 법제자…생활선 주창

정혜 스님은?



1932년에 출생한 정혜 화상은 3세에 동진 출가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통을 계승했다.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 이란 기치아래 1991년부터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생활선 대회에는 매년 북경대 학생 등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조박초 거사의 입적으로 회장 공석이된 중국불교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중국 불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혜 스님은 백림선사 내에 3년과정의 하북성불학원과 선학연구소에서 100여명의 학인에게 불학 및 문화(종교정책, 고대한어, 중국사, 세계사, 철학, 영어, 서도 등 외전)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스님은 중국 선종의 부흥에 심혈을 기울여 귀운암(歸雲庵)에 일체의 출입을 통제한 무문관(壁觀)을 설치해 7명의 수좌가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내부공사중인 청송루(聽松樓)도 무문관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사찰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1999년 11월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만불전과 2개의 선당 건립 불사에 착공, 2003년 음력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중이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 흥선 스님



<전호에 이어>

불교문화는 우리에게 신앙이며 귀의처인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의 정직한 표정이고 사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찰의 신축건물 불사에 못지않은 공덕과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건만 스님들도 불자들도 너무 무관심하다. 사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불교문화재를 한 개인의 소장품으로 있게 하기엔 너무 안스러운 일이다. 사찰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보존하는 차원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물 구입에 관해서는 오로지 사찰의 문제이므로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건물 신축 불사에만 정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재를 구입하는데 아낌없이 시주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흥선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까지 왔다.

스님은 며칠간 서울에 머무른다며 오늘은 초서(草書)를 공부하러 간다고 한다. 난 글자가 똑똑 떨어지는 독초(獨草)는 좀 알겠는데 글자의 획이 주르륵 이어진 연면초(連綿草)는 그냥 이응노의 문자그림과 같건만 스님은 그 초서를 배우러 다닌다 하니 나날이 깊어 가는 스님의 학문에 머리가 숙여진다. 하긴 그렇게 공부했으니 절집의 온갖 비문과 경서들을 섭렵할 수 있을 것이다.

탁본 남다른 재주와 열정
타고난 불교문화 지킴이

스님은 또하나 남다른 재주가 있는데 탁본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홍준 교수에게 '현대불교'에 흥선 스님에 대해 쓸 예정이라고 하자 한마디로 평한다.

"흥선 스님이야 명탁(名拓)이지." 흥선 스님이 한 탁본 가운데 잘 된 것 몇 개를 짚어 달라고 하자 '상주남산 석각비천상(石刻飛天像)'을 꼽는다. 다른 것들은 다 판판한 돌에서 탁본한 것이지만 이것은 울퉁불퉁한 화강암 판석에서 한 탁본이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인데 매우 아름답게 됐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학고재화랑에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탁본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흥선 스님의 작품이었다. 거기서 본 비천상은 마치 금방이라도 발을 내딛어 나올 것만 같이 생생한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탁본을 보며 돌 속에 담긴 이미지와 느낌, 움직임까지 받았다면 그건 탁본으로는 성공한 것이다. 고창 선운사에 가면 추사가 남긴 백파선사의 비가 있다. '화엄종주 백파대율사 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라고 쓴 추사의 글씨는 반듯하며 장중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비문이다. 답사 길에서 그 비석 앞에 선 흥선 스님은 이 좋은 비석을 탁본을 잘못 하여 다 망가트려 놓았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탁본을 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요샌 아예 탁본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주지스님에게 잘 말씀드리면 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탁본지식을 가진 이들이 비석에 온통 먹칠을 해 놓고 가는 바람에 스님들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탁본에는 습탁과 건탁이 있는데 습탁은 말 그대로 비석에 종이를 물로 불이고 먹물을 솜방망이에 묻혀 가볍게 두드리면 글자와 문양이 살아납니다. 이 습탁은 오랜 경험으로 먹물의 농도와 두드리는 손의 힘이 적절해야 아름다운 탁본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이게 추사친필이라 하니 탁본을 하려는 욕심으로 비석에 먹물을 마구 발라 놓고 종이로 찍어대는 바람에 비석이 먹물로 얼룩덜룩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건탁이 있는데 이건 종이를 대고 딱딱한 먹으로 문질러 글자와 문양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지요. 또 오금탁이니 격마탁, 선익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직접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탁본에 대해 해박한 흥선 스님의 탁본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매우 단아하다. 다른 이들의 탁본은 먹물이나 힘이 분산되어 가끔 얼룩덜룩하게 물결 무늬가 일기도 하는데 스님의 탁본은 깊고 고요한 바닷물 위에 글자가 솟아오른 것처럼 평정을 잃지 않고, 엷은 먹물로 된 것은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깊은 신심으로 가득한 수행자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님은 요즘 불교교양대학에서 그 동안 답사 길에서 만난 성보와 많은 문화유산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지닌 의미를 가슴깊이 느끼고 정겹고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신심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스님에게는 좋은 시주인연이 되어줄 선남선녀들이 무수히 생겨나 직지사 박물관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흥선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전하는 소임으로 깊은 수행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스님이 박물관장 소임을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끝〉

반야사 주지

禪茶一味 달여 만사람에게 권하니 마시는 자는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진제스님 게송

중국의 선종이 한 뿌리임을 새삼 되새기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주선차 기념비명에 이르기를 "한중 불교는 한 뿌리이니 옛부터 한 집안이며 선풍을 함께 하니 법맥 또한 서로 전함이니"라고 했으니, 이 비를 세워 후세에 선종의 자취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제스님=학술회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주선사의 '선다일미' 사상에 대해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산승이 점검하건대, 조주선사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드러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게송 읊기를)

조주고불(趙州古佛)에게 예배하노니,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는 것이 때에 따라 씀이로다. 선다일미를 달여 만 사람에게 권하니, 마시는 자는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남전선사가 때로는 말하기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어젯밤 삼경에 각각 이십 방(棒)씩 때려서 철위산(鐵圍山) 지옥을 향해 던짐이로다."

조주선사가 이르기를 "화상은 누구의 방망이를 맞으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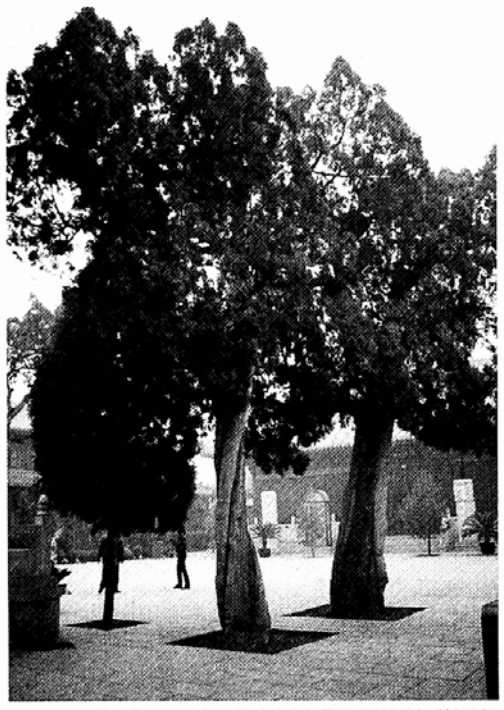
남전선사가 이르되 "일러라, 왕노사(王老師)는 허물이 어느 곳에 있음인고?"

조주선사 예배하고 물러나가시다.

도리어 알겠는가?

용과 범이 서로 부딪침에 번개불 긋는 기틀이 있음이로다. 남전선사와 조주선사의 날카로운 기봉앞에는 천하도인도 속수무책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시자야! 차를 달여 두 분 선사께 차를 올려라.

정혜스님= '선(禪)'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言語)에 의거해 선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차 시연을 통해 차의 정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에는 차(茶)가 없고 차에는 선이 없지만, 선과 차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또한 없습니다. 차는 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결국 선을 마시는 것입니다. 선의 본뜻은 바로 차의 본의입니다. 선은 믿건, 믿지 않건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중들은 '선다일미'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할 지라도 결국 다 못할 것이기에 게송을 지어올립니다.



◇천년의 풍상을 이겨내고 조주선사의 화두인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의 일화를 간직해온 손자뻘 측백나무(柏) 한 쌍.

禪茶一味의 뜻 만리의 강에 오래 오래 흐르기를

정혜스님 게송

가을 바람 청량하게 불어오는데(秋風陳凉) 옛 측백나무는 지금도 푸르구나(古柏今新香) 선다일미의 뜻(一味禪茶意) 만리의 강에 오래오래 흐르기를(悠悠萬里江).

진제스님=산승이 일미다(一味茶)를 대접하려 두 팔을 건지고, 두 손을 씻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앞에 차 한 잔 선물하려 합니다.

'악(喝)!'

정혜스님=선사께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을 일러주는 할(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제스님=제가 있는 해운정사에서 내년에 고불총림 방장 서옹 대선사와 중국의 정혜 대선사님, 그리고 일본의 고승을 모신 가운데 국제 무차선 대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스님의 왕림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혜스님=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림선사에서도 2003년 음력 8월 15일에 만불전 낙성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께서 증명해 주시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중국 하북성=김재경 기자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정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안되는분
◆나쁜꿈에 시달리는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황토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금강도공 호경 김휘철 합장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수맥과 전자파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및 곰기정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 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인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 입니다
◆황토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송출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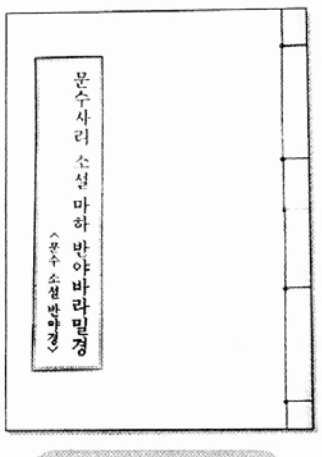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

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 소설 반야경>

우리나라 불교계에 처음 소개되는 경전
한글역「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보살이 설하는 심원한 지혜와 복덕의 경전



문수사리 소설 반야바라밀경을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지혜로운 자는 응당 일심으로 이 문수 소설 반야심경을 소중히 하고 뭇 중생을 도와서 안락하게 하고 공덕을 쌓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또한 신통력으로써 문수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수호해주리라 !

크기 19cm×25.5cm
134쪽
정가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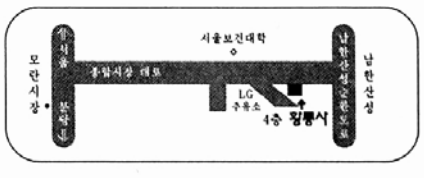
구입문의 : 연화불교출판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 (반월당보현사앞)
전 화 : (053)253-1923 / (053)524-8711
핸드폰 : 011)536-1923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 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족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 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시예불 ~
● 결 재 : 2001년 12월 22일 회향(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황룡사 주지 금해